

News

금융당국 '대출 조이기'에...은행들 우대금리 축소 또는 폐지

동아일보

은행들, 대출 상품 우대금리 축소 및 폐지하며 대출 조이기 강도 높이는 중...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서 제외하더라도, 원금 분할 상환과 대출 심사 등 강화한 강력한 보완 대책 예상
우리은행, 27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 금리 0.3%로 낮추기로... NH농협은행, 22일부터 최대 0.3%의 신용대출 우대금리 폐지

우리은행, 금보원 주관 '마이데이터 최종규격 심사' 통과

뉴스스

우리은행, 금보원 주관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능적합성 심사 통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12월 1일 시행
API 규격버전에 따라 심사하는 절차로 46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가장 먼저 최종규격에 맞춰 통과했다는 점을 사측 강조... 최종적으로 데이터 뱅크로 자리매김하는 것 목표

은행들로부터 무시당했던 P2P, 위상 달라졌다

조선비즈

씨티은행, 최근 P2P 업체 8퍼센트와 협력 추진 중... 한국 내 소매 금융 부문 철수 결정하면서 등 공백을 매각 방식 외에도 어떻게 채울 것인가로 고민 중
전북은행 또한 P2P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은행 중 한 곳... 현재 금융당국에 등록된 온투업자 총 33개... 다만 아직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

'주가 부양' 나선 금융지주, 분기배당하고 해외 IR도 시동

뉴스1

일부 금융지주, 올해 분기 배당 및 내년부터 정례화하는 방안 검토... CEO들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IR 시동
신한금융지주, 11초 해외 IR 재개... 해외 기존 주주 유지 및 새로운 투자자 확보를 위한 필수적 수단... 다른 금융지주들도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춰 해외 IR 준비 중

금융당국, 달러 보험 일반판매 허용...11월 개선방안 발표

조선비즈

금융위원회, 달러보험 등 외화보험의 불안전판매 예방 및 과대 수수료 억제 내용 중심으로 외화보험 관리 개선방안 마련... 다음 달 발표 예정
원래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가입자를 원칙적으로 달러 소득자 등 달러 보험금 실수요자로 제한하는 방안 제시... 리더십 교체 후 달러보험 규제 변화 기조

즉시연금 소송, 개별 보험사에 따라 희비 엇갈릴 듯

파이낸셜뉴스

보험연구원, 2020년부터 시작된 즉시연금 1심 판결에서 NH농협생명 제외한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등 4개사 패소 후 항소 상태
"즉시연금 소송 쟁점은 '연금계약적립액에 대해 이를 제대로 설명했는가에 대한 것'... 이자상당액 중 매월 일정액을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공제해 계산 내용이 약관에는 부재

증권사, 변동장에 3Q 실적 '흐림'...브로커리지 감소세 뚜렷

데일리안

변동장에 거래량 급감하며 위탁매매수수료 감소세 뚜렷...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축소 전망으로 수수료 수익성 감소 분위기 이어져...
국내외 금리상승 환경과 금융당국 가계대출 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4분기에도 브로커리지 수익 계속 전망

증권사 부동산B도 전략 변화...자금 조달 연기+다른 조달처 모색

e대한경제

증권사들, 25일부터 시행되는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한도 축소에 비상
대형사들은 풍부한 자기자본 덕에 중소증권사에 비해 새마을금고 의존도 낮은 편... 중소증권사 "브리지론 포함하면 단일 PF딜에서 새마을금고 통해 조달자금 비중 50~60% 수준"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